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1



▶ 42회 예고
담마팔 사문을 만난 빈두사라왕은 자신의 미래를 묻는다. 담마팔 사문은 빈두사라왕에게 10년 후의 큰 고비를 예언한다. 이에 라다굽따는 대책을 궁리한다. 담마팔 사문은 다르마 왕비를 만난 뒤 아쇼까 아들 꾸날라의 스승이 된다.

특사 라다굽따, 빈두사라왕에게 보고

빠딸리뿌뜨라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특히 외성 저잣거리는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북적거렸다. 구루와 사문들도 각기 특이한 복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빈두사라왕이 공양을 올리는 날에는 몇 만 명이 내성에서 외성으로 쏟아져 나왔다. 전쟁이 사라진 이후 내성 밖의 해자는 연을 심어 이제는 연꽃 수로로 변해 있었다. 마차를 끄는 말발굽 소리도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다. 귀족 젊은이들이 마차에 앉아서 고성방가를 하고 다녔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 라다굽따는 감개무량했다. 사고 없이 무탈하게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빠딸리뿌뜨라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대신으로서 기쁘기 짝이 없었다. 라다굽따는 내성 동문으로 들어서 바로 빈두사라왕이 정사를 보는 궁궐로 입궐했다. 그런데 빈두사라왕은 궁궐 집무실에 있지 않고 별궁 침소에서 궁중의원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라다굽따는 집무실을 들어가지 못한 채 궁궐 회랑에서 서성거렸다.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의 건강 문제가 위중하다고 판단했다. 특사로 떠날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집무실에 오래 앉아 있지 못했던 것이다. 아무튼 별궁 침소까지 궁중의원들이 드나든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그때 칼라따까가 나타나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어제는 대신들이 침소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소."

"회의를 침소에서라도 했다니 천만 다행이오."

"전쟁 중이라면 지금쯤 큰 혼란이 왔을 것이오."

빈두사라왕의 허락이 없어도 별궁 침소를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은 대신들 중에서 수상 칼라따까에게만은 주어져 있었다. 칼라따까가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특사로 갔다 왔으니 보고를 해야지요. 자, 대왕님 별궁 침소로 갑시다."

"그동안 대왕님을 보좌하느라 수고하시었소."

"아니오. 특사로 떠난 라다굽따께서 우여곡절이 많았겠지요."

"웃자인 아쇼까 부왕께서 성민들을 잘 다스리고 있어 멀고 먼 길이었지만 특사로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오."

빈두사라왕의 별궁은 궁궐 깊숙한 곳에 있었다. 경비군사들이 겹겹이 경계를 서고 있는 안전한 언덕에 자리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의 별궁에 들어가면서 경비군사의 검문과 검색을 받지 않았다. 칼라따까가 두 팔을 휘휘 크게 저으며 앞서 걸었다. 수상의 위세에 경비군사들이 굽신거렸다. 두 대신은 바로 빈두사라왕의 침소로 갔다. 때마침 궁중의원들이 침소에서 나오고 있었다. 궁중의원 중 한 명을 붙들고 칼라따까가 말했다.

"대왕님은 어떠신가?"

"위중한 고비는 확실히 넘기신 것 같습니다."

"의원들 덕분이네. 대왕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신다면 포상을 상신하겠네."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릅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았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경비대장에게 말하게. 경비대장에게 지시해 둘 터이니."

칼라따까가 수염을 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라다굽따는 자신이 특사로 가 있는 동안에 빈두사라왕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자연스럽게 수상인 칼라따까에게 일부 권력이 기울어져 있음을 느꼈다. 경비대장은 빈두사라왕의 명령만 따를 뿐 수상의 직속부하는 아니었던 것이다. 다르마 왕비와 가까운 경비대장이 칼라따까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었다. 어제부터 건강을 회복한 빈두사라왕이 침소 방문까지 나와서 라다굽따를 맞이했다.

"라다굽따 제관, 어서 오시오."

"대왕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오."

"대왕님, 소신이 다녀온 마우리아왕국 영토에는 대왕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라다굽따가 거친 속국은 까시국, 앙가국, 아반띠국 등이었는데, 부왕들 모두가 통치를 잘하고 있었고, 성민들도 불만 없이 생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다굽따는 속국의 평화를 빈두사라왕의 은혜로 표현했다.

"아쇼까 부왕은 잘 있던가요?"

"웃자인 반란을 진압한 뒤 대왕님의 칙령을 관리와 상인들을 통해 잘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반띠국은 상인들이 많은 나라지요?"

"앙가국이나 까시국도 상인들이 많습니다만 아반띠국은 특히 상인들의 무역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수장들이 아쇼까 부왕님께 충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라따까가 한 마디 했다.

"아쇼까 부왕님은 탁실라의 반란에 이어 웃자인의 반란을 진압한 공이 큽니다. 그러니 아쇼까 부왕님을 때가 되면 빠딸리뿌뜨라로 불러들여 큰 상을 내리고 대왕님 곁에 두셔야 합니다."

"탁실라에 갔다 온 특사의 보고에 의하면 수시마 부왕도 통치를 잘 하고 있다니 상을 준다면 두 부왕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할 것이오. 언어와 풍습이 다른 위험한 변방을 통치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소?"

빈두사라왕이 아쇼까 부왕에게만 상을 주자는 칼라따까의 말에 제동을 걸자, 라다굽따가 슬그머니 화제를 돌렸다. 칼라따까의 안색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대왕님께서 찾으시는 사문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자님들의 스승으로 더 없이 훌륭한 사문입니다."

"누군가요?"

"산치 절에 있는 담마팔이라는 사문입니다. 전생과 금생, 내생을 관통해서 보는 천안통을 가진 고승입니다."

"전생과 내생을 보는 사문이라니 드문 일이오."



"내성 안에 있는 조그만 절에서 쉬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소."

"내일이라도 대왕님 침소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오."

빈두사라왕은 더 이상 앉아 있기가 힘든 듯 의자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칼라따까가 눈치를 채고 라다굽따의 손을 잡아끌었다. 빈두사라왕이 의자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것은 자리를 파하라는 신호였다. 칼라따까는 침소를 드나드는 동안 빈두사라왕의 심기를 누구보다도 잘 간파했다. 빈두사라왕의 심기를 간파하지 못하여 침소 출입을 봉쇄당한 대신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은 엉뚱하게 경비대장을 원망하곤 했다. 경비대장은 빈두사라왕의 지시를 따를 뿐 대신들에게 아무런 감정이나 원한이 없었던 것이다.

별궁 침소를 나온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궁궐 회랑 모퉁이에서 헤어졌다. 라다굽따는 다르마 왕비 별궁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쇼까 부왕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라다굽따가 빈두사라왕 침소로 갔다는 소식이 궁중에 돌았는지 아상디밋따와 락슈미띳사가 다르마 왕비 별궁 화원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을 알현한 라다굽따가 반드시 다르마 왕비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라다굽따가 웃자인에 특사로 갈 때도 다르마 왕비와 아상디밋따의 편지를 아쇼까 부왕에게 전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르마 왕비의 시녀 락슈미띳사가 라다굽따에게 종종걸음으로 걸어와 말했다.

"제관 대신님, 왕비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요."

"부왕 비(妃)께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저를 맞아주시는군요."

"지난번에 저의 편지를 부왕님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다굽따는 락슈미띳사를 앞세우고 다르마 왕비 별궁으로 들어갔다. 다르마 왕비도 라다굽따를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다.

"대신이여, 어서 오세요."

"왕비님, 아쇼까 부왕님께서는 동생이 생겼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부왕이 지금 빠딸리뿌뜨라에 있다면 동생 비가따쇼까를 귀여워하련만."

"빠딸리뿌뜨라로 복귀하신다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누구보다도 사랑하실 겁니다."

"꾸날라 못지않게 사랑할 거예요."

꾸날라를 보살피고 있는 아상디밋따가 말했다. 다르마 왕비 옆에 앉아 있는 꾸날라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젓했다. 큰 눈을 껌벅거리면서 라다굽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꾸날라 왕손님의 스승이 될지도 모를 한 분을 웃자인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내일 대왕님께 알현시킬 사문 담마팔입니다."

"대왕님께서 꾸날라 왕손에게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사문을 원해요. 아쇼까 부왕이 어렸을 때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을 스승으로 삼은 적이 있는데, 사문의 자애로운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라다굽따도 마음속으로 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르마 왕비와 같이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의 자애로운 인품에 반한 적이 있었으므로 담마팔 사문에게도 기대를 했다. 브라흐마 제관들은 누구나 왕의 측근이 되고자 권력욕이 강했지만 사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대왕님께서 왕자님들의 스승으로 사문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소신이 아쇼까 부왕의 추천을 받아 여기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대왕께서는 총애하시는 라따나 왕자의 스승으로 삼으시려 하겠지요."

"왕비님, 아닙니다. 꾸날라 왕손님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따나 왕자님의 스승은 칼라따까 제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르마 왕비는 라다굽따의 말에 꾸날라를 쳐다보며 좋아했다. 그러자 꾸날라가 말했다.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스승은 필요 없어요."

"꾸날라야, 너도 이제는 스승에게 산스크리트어를 배울 나이가 됐단다."

"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바보가 되지 않는단다. 사문은 하늘의 세계까지 알고 있는 분이니 얼마나 좋으니."

"스승은 어느 나라 분이죠?"

"라다굽따 대신께서 아주 먼 나라에서 모시고 왔단다."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비가따쇼까가 낮잠에서 깨어나 우는 소리였다. 아상디밋따가 재빨리 비가따쇼까가 우는 방으로 갔다. 라다굽따는 그 순간을 이용해 말했다.

"왕비님, 아쇼까 부왕께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사실인가요?"

"제가 떠나기 전날 청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소?"

"웃자인 진압군 출신의 선봉대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일 것입니다."

다르마 왕비는 놀라면서도 기쁘게 받아들였다.

"어떤 여자인가요?"

"베디샤 상인수장의 딸인데 소신이 모시고 온 담마팔 사문과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문을 만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상디밋따가 비가따쇼까를 락슈미띳사에게 맡기고 들어왔다. 그러자 라다굽따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상디밋따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상디밋따가 아무리 도량이 넓은 여자라 하더라도 아쇼까에게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결코 기쁜 소식은 아닐 터였다. 라다굽따는 담마팔이 머물고 있는 절로 가기 위해 바로 일어났다. 내일은 담마팔 사문이 빈두사라왕과 다르마 왕비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었다.〈계속〉

삼학사 온라인 불교강좌

랍숨섀둡링(삼학사)는 티베트불교의 수행 도량으로서
매주 주지인 게쎄 남카스님의 지도하에 불교경론에 대한 강의와 기도를 진행합니다.
모든 강의와 기도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오는 12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강의에 많은 사부대중들의 동참을 권합니다.

■ 일 시 : 2021년 12월 1일 개강 - 6개월 과정 (24회, 10회당 2회 복습·정리)
■ 강의과목 : 종의보만론, 도의 체계, 밀교

종의보만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도의 체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밀교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종의보만론』은 경량부, 유부, 유식, 중관학파의 종의를 해설한 논서입니다. 이 논서를 통해 6개월간의 과정에서 각 3개월씩 소승학파와 대승학파의 견해를 배웁니다.	발심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와 체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6개월간의 과정에서 성문, 독각, 대승의 5도道 10지地를 닦는 과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성불에 이르기 위해 궁극적으로 설하신 밀교에 대해 배웁니다. 6개월간의 과정에서 각 3개월씩 밀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실질적인 수행법과 관상법에 대해 배웁니다.

※ 밀교강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리심과 공성을 명상하고, 매일 1회 라마최빠 기도문을 독송하시겠다고 서약하시는 분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도 프로그램
라마최빠 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티베트 불교의 전통으로 불보살과 스승을 하나로 관상하고 수행하는 라마최빠를 독송하고, 관상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강의신청 및 문의전화 : 02)358-4221, 010)3264-4221 (문자 수신 가능)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95 연신빌딩 3층(랍숨섀둡링)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모집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선밀종은 아래와 같이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총무원 T. 053)854-0803 F. 053)854-0804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홈페이지 www.sumiljong.or.kr